南山으로 거리로 서울을 闊步

北赤대표단 어제 마지막 觀光

拉北인사 安否문자 "별로 살것없다" 「쇼핑」안해

"어서나와 물러가라"

"白頭서 漢拏、金剛山서 계룡산까지 새는 넘나드는데 血肉 왜못만나나"

南山入場券 이날 입장은 오전 10시부터 시작, 40분이나 걸은 상오 10시 40분부터 하오 1시까지 남산 순환도로를 따라 설치된 특별 입장권 발매소에서 표를 사야 한다.

관광차 탑승인원은 「캐딜락」 4대, 「크라운」 4대, 고속버스 3대등이 동원되었는데 八백명에 이른 엄청난 서울의 교통혼잡을 예상, 경찰은 교통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산에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북괴대표단원들은 「카메라」를 들고 나와 「파노라마」 「크라운」 「캐딜락」 등 차종별로 나누어 타고 남산을 떠나 시내 관광에 나섰다.

남산에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북괴대표단원들은 「카메라」를 들고 나와 「파노라마」 「크라운」 「캐딜락」 등 차종별로 나누어 타고 남산을 떠나 시내 관광에 나섰다.

◇남산에 올라 한국 경관을 내려다보는 北赤대표단원들. 맨 왼쪽이 金泰熙 단장이 손으로 무엇인가 가리키고 있다.

◇…大統領, 大學美展관람 …차림으로 …관람하고 있다.

물난리 慶北에도

迎日·月城 堤防터지고 마을휩쓸어 41명死亡

5千萬원 緊急放出

朴大統領지시 嶺南水災복구에 總力을

金泰熙, 野山開發團地시찰

쇼핑取消 市民感情때문 AP報道

明洞人波 보고 놀라

地下鐵공사에 큰관심 "平壤엔 필요치않다"

一家4명이 燒死 남편과 싸우고 불질러

"北의 墓所 그대로" 對話도 부드러워

대체로 맑고 구름 다소

3·4대國會議員 吳在泳씨 별세

The New York Times

(Daily-Sunday Edition-Weekly)
WASHINGTON POST. JAPAN TIMES.
LONDON TIMES. LONDON

242만명의 학생이 입은 ——

에리트 "GOLDENTEX" Elite®

* 에리트 체육복지는 빨아도 줄지 않고 구김살이 가지않는 이상적인 체육복지입니다.

제일모직

자랑스런 제일모직 에리트는——
올해도 「영국」과 「벨기에」로 80만 야드나 수출된 질기고 실용적인 ㉮표시 ——— 합섬에리트
羊毛혼방율이 30%로 더욱 고급화된 여학생용 ——— 혼방에리트
羊毛 30%로 고급신사복지와 같은 여학생용신제품 혼방캐시미어, 혼방구랫빡
등, 다양한 품종으로 학생의 품위를 한층 높여 줍니다.